

이렇게 들었다

효도

“부모를 위해 자기 몸 불사르기를 억만겁 할지라도 은혜 못미친다”

25일(음7월15일)은 우란분절이다.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를 구운 신심으로 구해낸 효심을 기려 선망부모 천도제를 지내는 날이다.

갈수록 혼란해지는 세상에서 효(孝)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의 덕목이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인간관계에 기본을 둔 효는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자식간의 도리를 망각해 가는 오늘날 우란분절을 맞아 경전속에 나타난 효의 본뜻을 헤아려 본다.

(편집자 주)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메고 히말리야를 백번 천 번 돌아 살갓이 터지고 뼈가 부서진다 할 지라도 부모의 은혜에 미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 1백자루의 칼로 자기 몸을 수시로 1천겹을 자른다 할 지라도 부모의 은혜에는 미칠 수 없다. 부모를 위해 자기 몸에 불사르기를 억만 겁 할지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에는 미칠 수 없다. <부모은중경>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것은 과멸의 문이다. <수타니파타>

만일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 바라문을 존경할 줄 모르고, 진실하고 미덥게 행하지 않고 복업을 짓지 않으며, 후세의 죄를 두려워 하지 않으면, 그는 이것으로 인연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뒤에는 지옥에 나게 된다. <중아함 천사경>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식(衣食)을 제공함은 하품(下品)의 효양(孝養)이요, 아버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중품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을 상품(上品)의 효양이라 한다. <아함경>

자식이 부모를 시봉함에 마땅히 다섯가지의 일로써 하라. 첫째 살림살이를 잘하여 가업을 잘 지켜가고, 둘째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셋째 모든 일에 있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넷째 언제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여 잊지 않고, 다섯째 부모가 병이 나면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껏 치료해 드려야 한다. <육방예경>

선(善)의 최상은 효도(孝道)보다 큰 것이 없고, 악(惡)의 최상은 불효(不孝)보다 큰 것이 없다. <인욕경>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는 하늘의 명령이다. 사람의 길로서는 효도만큼 큰 것이 없다. <호경>

늘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쉬는 일 없거라. <회염경>

만약 총명한 지혜를 지닌 지자(知者)가 있어서 생사의 피안에 도달하려 한다면, 웅당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 <금강계주수행경>

자비스러운 부모가 오래 길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산왕(山王)과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어서 대해(大海)와 같다. <심지관경>

에사 아니셨어라! 부모께서 큰 고통을 받으사 열 달이 차도록 내 태(胎)를 품으시며, 태어난 다음에도 마른 자리로 옮겨 눕히사 습기를 제거하시며, 더러운 똥 오줌을 치우시며, 젖 먹이고 씹어먹여 길이 기르사 내 몸을 보호하시도다. 이런 도리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니, 부모를 봉양하고 모셔서 지켜드리며, 그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하리니. <열반경>

부모를 효도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일생보처(一生補處)의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중일아함경>

사찰 수련회를 포교의 장으로



지원스님
심보사 주지

이번 여름 재계본사인 설악산 신흥사의 주지스님과 대중일동이 단합하여 처음으로 하기수련회를 개최했다. 100명 모집에 무려 7백여명의 문자가 들어왔고 결국 어린이 100명 청소년 100명 성인 110명을 확정지었다. 교육프로그램 등의 준비로 지쳐있던 내외 삼신인, 이토록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열의때문에 새 활력을 얻었다. 예불 발우공양 108배 사경 참선 등 외에 위빠사나 수행과 불교교리 강좌에 많은 시간을 배정했다. 수강생 모두가 좋은 반응을 보였다. 폭우로 물난리가 났음에도 성인반은 접수 134명중 114명이 참석하였고 종교도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 28명이었다. 불자는 28명에 불과했다.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산사수련회는 포교에 아주 좋은 장(場)이 분명하니 종단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단의 획기적인 발전은 오직 포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교활동에 종단적 체계가 정립되어 중생제도의 본인을 실천하는 것만이 승가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끝내고 느낀 점중 하나는 지도법사의 일거수 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지도법사가 앉아서 이끄는 프로그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초종초종한 눈망울을 굴리며 진지한 수강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수련회에 임하는 스님들의 마음 자세와 준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주말단기 수련회 등도 좋겠고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그 사찰만의 특성을 살려 테마성있는 작은 수련회 등을 연속적으로 연다면 포교에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목.소.리

일부 기독교인의 어리석음



전재성
한국 배럴리
성전협회장

<신앙계> 7월호에는 “야소가 이방에 오면 내가 깨달은 도는 깨진 등불(何時耶蘇來 吾道無油燈)”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주장하는 순복음교회 김동일 장로의 글이 발표되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한문어구를 스티커로 만들어 자동차에 부착하여 불교를 비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부처님이 예수의 출현을 예언하고 예수가 출현하면 불교는 기쁨없는 등불이 되어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앙계>는 “하시야소래 오도무유등”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전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근거없이 조작된 말이다. 김동일씨는 <라마다경>이란 스리랑카에 보관된 경전에 나온다고 열거하였는데 필자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초기불경이건 후대 대승불경이건 그러한 경전은 없다. “예수가 오는 날 길은 기쁨없는 등불이 되리라”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와 관련되어 중국의 신학자들이 한 말이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갑자기 신앙이 찾아올 때를 대비 평소 그곳 기쁨을 담아두지않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쁨을 준비하지 않아 신앙이 오더라도 “우리 등불은 기름이 없어 꺼져간다”고 통탄해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쁨이란 평소 착한 일을 하여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없이 맞출 수 있는 유익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예수가 오는 날 기쁨없는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게 돼 주님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무지를 자탄하여 “예수가 오는 날 나의 도는 기쁨없는 등불이 되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차량용 스티커까지 제작하여 부처님이 예수의 출현을 예언했다는 식으로 전도하고 다니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방자한 행동은 어리석음과 자만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목탁소리

위영란 <취재부장>

“남만 남이 아니라 기쁜 것은 다 남이다.”

시 ‘남의 침묵’ 군말에서 밝힌 만해스님의 명제대로, 8.15광복절을 전후해 13일부터 16일까지 내설악 백담사 계곡은 만해죽전에 참가한 모두의 ‘남’들이 모여 ‘만해 열기’로 가득찼다.

만해기념관 만해적선당 만해교육관... 백담사 경내는 은은 만해로 이름지어 새로 들었던 전통목탁 당우들로 이미 면모가 새롭게 단장됐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온 외국의 불교학자들과 조병화 고은 김남조 오세영 유안진 신달자 조세희 등 유수한 문인들에게가 신진 및 예비문인들까지, 문학 사상 철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만해 사랑’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선사로서의 만해를 부각시켰으며, 국내의 석학들이 새 천년을 겨냥해 만해를 연구하고 발표한 첫 국제학술회의는 세계속에 만해스님의 위상을

백담사의 ‘만해 사랑’

을 정립해 나간 것도 큰 성과였다. 사실 그동안 만해스님은 불교집안에서조차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었다. ‘만해선생’으로 고집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나마 ‘만해선사’로 불리우더라도 한국불교의 수장단인 조계종에서는 총무원장이 공식적으로 만해관련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만해스님은 백담사를 통해 한민족사 나아가 세계사속의 인물로 부각됐으며 ‘만해학’으로까지 문열이를 한 것이다.

그만큼 후담거리도 많다. 고귀했던 점은 백담사를 아우르는 신종사 회주 ‘무산스님’이 행사 전체를 뒷바라지 하면서도 이렇듯 얼굴도 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프랑스에서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차 20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던 학자도 단 3분동안 발표해야 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일 수 없었던 허락한 일정행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백담사는 11년전 전직 대통령이 은둔함으로써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명소가 되었고 이렇게 만해스님으로 인해 문학과 사상과 불교철학이 융집된 ‘큰 절’이 되어 있었다.

열린마당

불교 도농공동체 운동

“도·농공존 생명살림 근본”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현대인들은 나는 나, 너는 너, 인간은 인간, 자연은 자연 등 모든 사물을 남남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래서 나만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자연과 분리된 채로 인간생명이 엄연하게 따로 있다고 믿는다. 또 이런 ‘독립된 남남’이라는 사고는 자기중심의 이기적 사고를 낳음으로써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방향과 길을 밝힐 등불인 올바른 세계관에 대한 방법론의 모색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 고기 잡으려는 격’이 되고 만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공동체 운동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다는 관계성의 진리를 따르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신념과 원력으로 관계성의 진리가 실현된 사회상을 보이고자 승가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따라서 불교는 진리를 따르는 사부대중공동체의 모습으로 대승불교운동을 펼쳐 왔다. 또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결사공동체 운동을 펼쳐 왔다. 또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결사공동체 운동을 펼쳐 왔다. 또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결사공동체 운동을 펼쳐 왔다. 또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결사공동체 운동을 펼쳐 왔다.

결국 불교는 이를 기반으로 너와 나,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이 공존·협력·균형을 이루는 삶의 문화를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시와 농촌 사찰은 스스로 생명산업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을 계도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과 생명살림의 근본이다.

“생협운동 인간-자연 상생”

권영근(농아촌사회연구소 소장)



다양한 생활활동의 공존은 생활활동이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동안 인간은 순환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다른 생물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20세기의 문명은 이처럼 순환성과 다양성을 파괴해 온 문명이다. 이제 이러한 관계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 또는 현상은 동적인 흐름의 일부이며, 모든 사물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기법의 원리를 말해왔다. 생활활동 협동조합의 철학은 바로 이것이다. 농업은 인간과 자연이 협동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 관계성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사업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소비가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유통자본에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협동조합은 생산과정이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조직과 소비조직을 연결하는 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민주성 확보와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물류 합리화를 통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 제도적 정비와 공신력 확보 등의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세기의 자본주의의 물질문명 구조의 가치관을 바꾸고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에 생활협동조합운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부산 BBS 불교방송국에서 1년간 강의된 기초교리

21C를 겨냥한 불교기초교리 강좌

진리의 향기

원친스님

- 통도사 교무국장 역임
- 통도사 포교국장 역임
- 통도사 총무국장 역임

● 작은 것에서 얻는 큰 깨달음 ●

불교신도 중에는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 없이 무조건적으로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다.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찰 예법이나 교리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BBS 불교방송국에서 <진리의 향기>란 제목으로 방송 강의된 내용들을 보강하고 재편집하여 초심자들이 불교의 기초교리를 공부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알찬 내용들로만 묶었다.

출판기념법회

- 일 시 : 1999년 8월 31일
- 장 소 : 부산 코도도 호텔 중무홀
- 시 간 : 저녁 7시
- 문의전화 : 0525-329-1056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하오니 무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귀명정례 삼보 귀의하옵고,
우리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는 만해 한 용운 대선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결성한 청년불자들의 모임으로써, 그 79돐을 맞이하는 현재 전국위 240여 지구 지부 지회의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불교계에서는 전국 최대의 조직적 단체로써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청년 불자들은 수차례 어려운 풍파를 견디면서도 오호려 그 사려를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 대한불교청년회가 한국에서의 그 어느 청년단체보다도 이상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대 전제 아래 사심없이 지진, 성원 해주신 많은 스님들과 신도님들, 그리고 선배 불청동지들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해와 최근의 예상치 못한 종단의 사태로 잠시나마 침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불교의 희망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자, 새로이 20대 전 안 호 회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청년불자들의 노력과 정진에 많은 대덕 스님들과 신도님들께서 지혜의 채찍과 법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 있으시길 바라오며 합창 배례 하옵습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불기 2543년 8월17일

중앙회장	전 안 호	수석부회장	김인택	직할서울총청	김인택	직할계서청년회	이종찬
부회장	홍 무 용	연수원장	이선세	서울지구청	박 찬 용	경기지구청	문 성 근
부회장	구 계 완	사무총장	정 상 욱	강원지구청	임 철 혁	충북지구청	광 성 범
부회장	김 회 영	기획실장	이 성 상	충남지구청	유 석 근	대전지구청	송 석 범
부회장	김 규 범	만해대학처장	하 영 태	전북지구청	장 명 욱	광주지구청	이 주 성
부회장	정 용 정	대의외장	이 상 번	경북지구청	이 정 환	대구지구청	김 보 수
부회장	김 의 석	감 사 고	한 대 수	경남지구청	하 귀 만	부산지구청	김 수 현
부회장	박 범 수	감 사 고	정 교 관	제주지구청	김 만 국	전남지구청	서 진 권

(사)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 전 안 호